

20세기를 바라보는 노 역사가의 시선

에릭 홉스봄 지음 《극단의 시대:20세기의 역사》(상·하)

이영석

광주대 교수 · 서양사

우리는 지금 한 세기를 마감하고 다음 세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서 있다. 서력(西曆) 기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는 기대보다는 불안을, 신뢰보다는 불신을 안겨준다. 우리의 삶과 주위 세계에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증폭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인간은 어디에 와 있으며 또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접할수록 우리의 삶을 살아온 지난 20세기를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파국과 변영의 극단을 오간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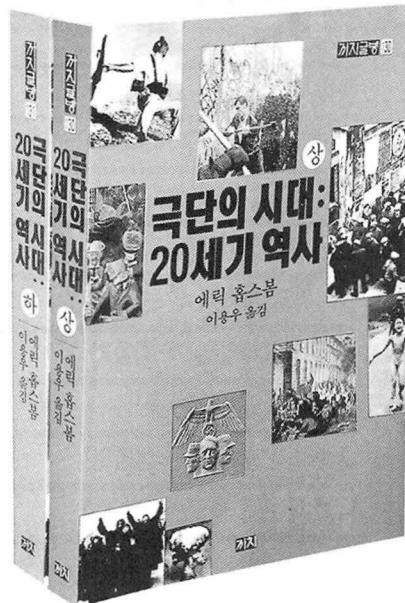
에릭 홉스봄의 《극단의 시대》(이용우 옮김)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뛰어난 역사 서술이다. 특히 현재의 경험을 과거의 그것과 연결짓기를 싫어하는 오늘날의 몰역사적 세대 속에서 이 책은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책에서 홉스봄은 1914에서 90년대에 이르는 '단기 20세기'를 세 시대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책의 구성과 일치한다. 홉스봄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이 책은 일종의 '샌드위치 역사'이다. 왜냐하면 1부 '파국의 시대'(1914~45)와 3부 '붕괴의 시대'(1973~1991) 사이에 단기간의 '황금의 시대'(1945~73)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책의 1부와 3부는 그야말로 파국과 붕괴로 점철되어 있다. 그 반면에 2부는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다. 이와 같이 단기 20세기는 파국과 변영의 양 극단을 오가는 시계추의 궤적을 보여준다. '극단의 시대'라는 책의 제목 자체가 20세기에 대한 노역사가의 비판적 성찰을 암시한다.

사실 홉스봄의 학문적 이력은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에드워드 톰슨과 함께 19세기 영국 노동사를 역사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특히 독자적인 생활과 사고방식을 지닌 산업노동자 계급의 등장을 '아래로부터' 조명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자 항의와 집단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노동사 또는 농민사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대한 전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 런던에서 행진하고 있는 영국의 조선소 노동자들.

에릭 홉스봄의 책은 세기의 전환점에 선 우리에게 지난 20세기를 성찰하는 뛰어난 역사서술을 보여준다. 변영을 사이에 두고 파국과 붕괴를 오간 '샌드위치 역사', 20세기 시계추의 궤적을 따라 노역사가의 비판적 성찰을 엿볼 수 있다.

체사적 서술을 시도하여 학문적인 명성을 쌓았다.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로 이어지는 그의 저술들은 산업혁명 초기부터 제국주의시대까지, 이른바 '장기 19세기'의 자본주의 세계를 다룬 것이다. 《극단의 시대》 또한 장기 19세기를 다룬 위의 3부작과 마찬가지로 전체사 서술을 지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히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책이 단순한 전체사적 서술의 차원을 넘어서서 진보적인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치열한 삶을 살아온 한 역사가의 자전적 체험이 녹아 있는 동시대사 서술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의 남다른 유년기 체험은 '파국의 시대'의 불행과 겹쳐 있다.

그는 1917년에 이집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비엔나와 베를린에서 보냈다. 유대계

였던 홉스봄은 히틀러가 집권한 직후에 가족을 따라 영국으로 이주했으며, 제2차세계 대전기에는 캠브리지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에 복무하기도 하였다. 그는 유년기부터 유럽의 중심국가들을 전전하는 문화적 주변인이었다. 파국의 시대를 몸으로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의 이념을 수용했으며,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대망하는 좌파 지식인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극단의 시대》는 그의 이러한 정치적 신념과는 달리 노 역사가의 회한의 감정이 짙게 배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파국·황금·붕괴의 시대

그렇다면 홉스봄은 20세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선 '파국의 시대'는 전쟁과 공황 그리고 파시즘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이어진다. 두 차례의 전쟁은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총력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고 또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전시경제 아래에서 전쟁을 위하여 일하였다. 참혹한 전쟁과 대량학살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얼마나 더 잔인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려는 무대인 셈이었다. 한편, 두 전쟁 사이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가 가로놓여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고도로 억압적인 지배체제가 들어섰다. 극심한 대량실업과 파시즘의 공포가 일상생활을 지배하였다.

다음으로 '황금의 시대'는 겉으로 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 제3세계의 근대화, 과학기술의 발전, 생활수준 상승으로 이어지는 번영기였다.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경제가 국민경제들을 대신해서 번영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 번영의 이면에는 급속한 사회 문화적 변동과 혼란이 있었다. 농민층의 감소, 교육수준의 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같은 일련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핵가족의 위기, 성의 개방, 학생인구의 증가에 따른 청년문화의 성장, 기존 도덕률의 전면적인 해체 등 일련의 문화적 변화가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붕괴의 시대'는 자본주의의 황혼과 사회주의의 조락이 함께 겹쳐진 음울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1973년 석유위기 이후 자본주의는 저성장, 만성적인 실업, 인플레이션으로 표현되는 구조적 경제침체의 징후를 드러냈는데, 이것은 이전의 번영기에 형성된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경제가 스스로 위기에 대응하고 조절할 수 있는 통제적 기제를 결여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도 체제경쟁과정에서 경직성을 드러냈고 급기야는 전면적인 붕괴로 귀결되었다. 두 경제체제의 위기는 정치적 불안정과 표리관계를 이루었다.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세계의 당 지배체제가 붕괴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회민주주의가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인터넷은 실용적인 문명의 이기

미국과 독일 넘나들며 정보검색

이규성 · 도서출판 한울 이사

이와 같은 비관적 성찰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은 없는가. 사실 그동안 많은 지식인들이 '극단의 세기'를 경험하면서 '근대적인 것'에 대한 회의를 나타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의 '근대'는 신의 섭리나 주술에 기대어 현실에 적응하던 이전 시대의 삶의 양식을 벗어나서 이성(계몽)에 의한 합리적 기획을 통하여 전체 사회의 진보를 지향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탄식만 들리고, 분석은 보이지 않아

근대에 탈근대의 문제가 대두한 것은 바로 합리적 기획으로 표현되는 근대화가 더 이상 사회의 진보를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는 심각한 회의에서 비롯한다. 근대화가 남긴 것은 진보가 아니라 위협의 증대뿐이었다. 계몽과 근대화의 불안정은 바로 그 근대적 기획을 이끌었던 모든 가치체계와 사회이론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 이것이 오늘날 거대이론의 해체를 지향하는 포스트모던적 철학을 낳고 있다. 그러니까, 흡스봄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폐기처분하고 이러한 경향에 몸을 의탁한 것인가.

《극단의 시대》는 분명 이러한 인상을 낳는다. 이전의 3부작과 마찬가지로 흡스봄 특유의 뛰어난 '종합'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이 책에는 자본주의(토대)의 변화와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전체 사회를 재구성하는 이전의 정교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현대자본주의의 자태변환에 대한 흡스봄 자신의 분석이 없다. 다만 근대적인 것의 쇠락과 사멸을 비통해 하는 노 역사가의 탄식만이 들릴 뿐이다. 그러나 흡스봄이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단지 절망만은 아닌 것 같다(평자는 그렇게 믿고 싶다).

우리는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나마 그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다. 흡스봄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 '극단의 세기'를 좀더 철저하게 되씹어보라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구(舊)세기 보다는 훨씬 더 낮고 더 정의로우며 활력이 있는 미래의 세기를 논의할 수 있다. ◆

까지/A5신/840원/각12000원

얼마전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독일 영화를 보았다. 며칠간 그 영화가 던져준 강렬한 메시지와 한편의 서사시처럼 이어져가는 대사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문득 그 대사들을 한편의 책으로 만들어도 훌륭한 시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독일에서는 이미 책으로 나와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영화를 볼 당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탓에 영화의 원제가 무엇인지는 물론이고, 원작자가 누구인지, 감독이 누구인지조차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았다. 비디오를 다시 빌려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인터넷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아는 것이라곤 미국의 영화배우 피터 포크가 주연으로 나왔다는 사실 뿐이었다. 인터넷의 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http://us.imdb.com/Search/USA>)에서 피터 포크를 찾아보니 수백편의 <헝사 콜롬보>가 나열된 끝에 <Der Himmel über Berlin>이 눈에 띄었다.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이 영화가 과연 같은 제목의 책으로 출판된 사실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인터넷 상에서 독일책을 판매하는 KNO의 홈페이지(http://www.buchkatalog.de/home_e.htm/)로 찾아갔다. 같은 제목의 책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영화 감독인 빔 벤더스와 독일의 대문호 피터 한트케의 공저로 영화가 나온 지 8년 후인 제작년에 독일의 대표적인 문학출판사 주어캄프(Suhrkamp)에서 발행되었다. 이를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주어캄프로 저작권 문의 팩스를 띄우니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서 반가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엔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다. 얼마전 필자가 일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 한권을 살펴보면 중, 본문에서 타이러(E. Tyler)라는 유명한 고고학자의 저서인 《미개사회(Primitive Culture)》의 출판연도가 1971년이라고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 타이러가 죽은 것은 1917년이였다. 아마도 중판된 책의 연도를 저자가 그냥 기입했으려니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미심쩍어 확인해보기로 마



인터넷상 가장 완벽한 도서관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미국의회도서관 사이트.

인터넷은 지금도 실용적인

문명의 이기다. 인터넷 없이 산다는

것은 전화 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아마도

조만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직은 좁은 의미의

정보흐름 실용화 단계지만,

멀지 않아 지식의 흐름 자체를

대체할지도 모를 일이다.

음을 먹었다.

먼저 인터넷 최고의 비즈니스 성공사례이며, 절판된 도서까지도 중고 책을 추적하여 판매하는 등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필자가 이들에 한번씩은 꼭 방문하는 아마존 사이트(<http://www.amazon.com>)를 먼저 찾았다. 도서 검색을 해보니 절판된 도서로 출간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채 고든 출판사(Gordon Press)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존 사이트의 약점은 유통되지 않는 도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인터넷 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서관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미국의회도서관 사이트

(<http://lcweb.loc.gov/>)를 찾아가 도서 검색을 하여 1958년 하퍼 출판사(Harper)에서 발행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 역시 중판 도서인 것이 확실했다. 이미 내친 김에 끝을 보고 싶어 이번에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사이트(<http://www.eb.com/>)를 찾아가 '타일러'를 검색해보니 《원시사회》가 1871년에 출판된 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 1971년이라는 것은 분명 오기임에 틀림없었다.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약 도서관에서 찾았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으며, 과연 찾아낼 수나 있었겠는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분량만 해도 엄청날 것이며, 미국과 독일을 넘나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필자에게 인터넷은 지금도 실용적인 문명의 이기이다. 인터넷 없이 산다는 것은 필자에게 전화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아마도 조만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자신의 생업으로 삼는 출판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좁은 의미의 정보'의 흐름을 실용화할 수 있는 인터넷이 조만간 '지(知)'의 흐름 자체를 대체할 지도 모른다. 출판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멸의 징조일까 아니면 변신의 기폭제일까? ◆